

2015년 지방직 9급 A책형 영어시험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영어전임: 강수정

문제유형 및 난이도

	상(30% 미만)	중(50%)	하(70%)
어휘(3문항)		11, 4	
회화(3문항)	12	1, 4	2
문법(4문항)		2, 3, 9	3
독해	빈칸완성(7)	6, 14, 16, 18	17, 20
	주제찾기(2)	7	8
	세부사항(1)		19

총평

풀만한 문제였을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 중간난이도에서 약간 상, 약간 하로 난이도가 배치된 문제들이 많아서 시험장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공부한 보람을 펼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 난이도로 여섯 개의 문제를 배치했는데, 수능 3, 4등급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은 저 문제들을 맞혔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 영어평균이나 합격자 컷은 꽤 올라갈 것 같고요. 보통 80점 정도를 목표로 할 때, 75나 70점이 나와도 다른 과목으로 커버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번 시험에서 영어가 70점 정도라면 커버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꾸준히 실력을 쌓은 학생들은 80점을 대체로 넘었을 것 같거든요.

한 해에 가장 큰 시험 세 개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내일의 훌륭한 약일 수 있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오늘은 꼭 쉬시고, 오늘의 수고로 내일을 빛내시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④	③	①	①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②	②	③	①	①	③	③

해설

1 의사가 진단에 앞서 배제할 약간의 질병들이 있다.

rule out (규칙상(rule) 빼놓다) = exclude (밖에 두고(ex) 문 닫다(clude=close), PW 15)

2 ① was를 supposed 앞에 써야함. ② until은 끝 시점을 소개하는 시간부사절을 시작한다. until 이하가 과거라면 주절은 더 과거여야 하므로 had known으로 바꿔야 한다. know라는 상태를 뜻하는 동사를 불필요하게 진행을 쓴 것도 틀린 부분이다. ③ had better는 조동사라서 뒤에 동사원형을 써야한다. to 삭제. ④ 현재나 미래에 안할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시제를 제대로 썼다.

3 ④ 비교대상을 일치시켜야 하므로 you를 yours라는 소유대명사로 바꿔야 한다.

4 ④ 줄 서서 기다리지 않으려면 예약(book a table)을 해야한다.

5 ③ pictures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필요하므로 (A)는 that이 필요하고, the use가 주어이므로 (C)에는 meets가 필요하다.

6 ① 빈칸 앞에는 원시부족 이야기, 빈칸 뒤에는 일본 수입품 사용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어떤 문화도 고립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이 적당하다.

7 ① 여러 가지 숫자 중에서 본인의 시간가치값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주제이다.

8 ④ 첫 문장에서 실수가 교육에 핵심이라고 했고, 전형적인 예로 에디슨의 여러 실패(?)를 극복한 이야기를 하므로 답은 '실패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이다.

9 ④ under no circumstances라는 부정부사를 강조하면 뒤에 조동사를 도치해야하므로 should you로 바뀌어야 한다.

10 ② 빈칸 앞의 요점은 'how often'이다. 빈도를 대답한 것은 '5분 정도마다'를 뜻하는 ②번이다.

11 ① alleviate(PW 413)은 더 가볍게(levi=light)하다는 뜻에서 relieve(lieve=light)과 같은 말이다. accumulate(PW 411)는 '집적하다', provoke(PW 25)는 '도발시키다'를 뜻한다.

12 ③ "내가 돈으로 만들어진 줄 아니?"의 뜻을 추측해야한다. 대화 상황을 생각해보면, 누군가 돈을 요청할 때, 나는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라고 할 것 같지 않은가? not made of money는 그런 상황에서 '나 돈 없어'를 뜻한다. thrifty 근검한, stingy 인색한

13 ④ assertive(PW 306)과 차이가 있는 개념이므로 pushy는 assertive처럼 적극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timid 소심한, aggressive 공격적인

14 ② 빈칸 앞 마지막 문장을 보면, 썬크림에 대한 이야기이고, vitamin D의 흡수를 막는다는 맥락의 이야기이다.

15 ② 첫 줄에서 autokinetic effect를 동그라미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kinetic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auto가 '자동, 저절로'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잡고 글을 읽어야 '예상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을 한다'는 맥락을 잡을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16 ③ 신화가 이집트 문화에서 갖는 역할을 말한다. (A)의 주어는 신화, 대상은 많은 의식들이다. 신화가 의식을 활발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extinguish 불을 끄다를 지우고, corroborate는 confirm처럼 대상인 정보를 확인한다는 말이므로 뻔다. bolster와 underpin중에 underpin은 아래(under)에 핀을 꽂아 고정시키고 단단하게 한다는 말이므로 적

당해 보인다. bolster는 확 당겨서 활발하게 한다는 역동적인 단어이다. (B)를 보면, 고대에 신화가 현재처럼 부정적 함의가 있지 않았다는 말이므로 답은 확실해 진다.

17 ① 신나는 일을 할 때 피곤해지지 않는다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18 ① ‘천시간 규칙’을 보완해서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글의 주제이다.

19 ③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상당한 정보가 있다. ①은 첫 문장을 해석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④는 마지막 문장과 같다. ②를 확인하려면 1814년만 확인하면 되므로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20 ③ 첫 문장에서 주제가 ‘power role’이라는 것을 분명히하면, teachers 등이 예들이므로 답은 쉽게 나온다.